

IT융합 산업의 도약전략

정경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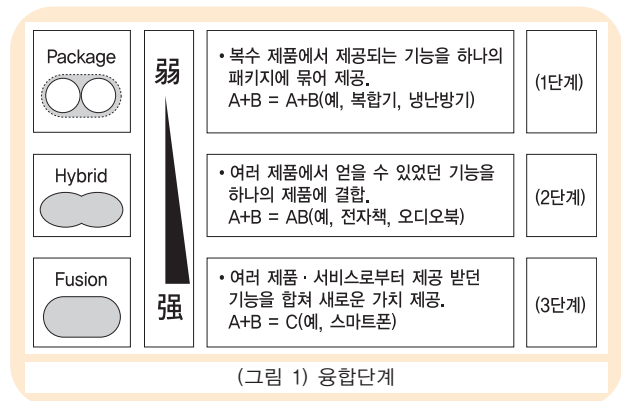
융합의 현상은 기술간, 디바이스간, 산업간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 유형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IT융합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산업 곳곳으로 확산되며 정보화 사회를 넘어 모든 산업에 IT가 융합되는 지능기반(Smart) 사회로 IT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IT융합 시장 규모도 점차 성장할 전망이다. 세계 IT융합 시장 규모가 2010년 1.2조 달러에서 2020년 3.6조 달러로 연평균 11.8%의 고성장이 전망되고 국내 IT융합시장 규모도 2020년에 1,237억 달러로 세계시장 성장률보다 높은 13%대의 성장을 예측했다. 이미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도 IT를 중심으로 산업간 융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IT융합은 자동차, 조선, 건설, 의료, 섬유 등 다양한 전통산업과 IT가 접목되어 새로운 혁신의 장을 만들고 있다. 우리 정부도 'IT융합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IT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주력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여 신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도 IT융합시대를 이끌 견인차가 되기 위해 2011년에 IT융합정책의 전략목표로 ① IT융합 인식 확산 및 제도 개선 ② 다양한 IT기술과 산업협력 모델 발굴 ③ 신 시장 창출을 통한 IT융합 확산 ④ 창의적 IT융합인재 양성을 선정했다. IT융합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과 미래 산업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부와 산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1. IT융합 산업의 시장 전망

통신기술과 IT인프라에 기반을 둔 정보화시대를 지나 다양한 기술과 산업 간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그동안 IT산업이 자체의 발전에 집중하는 수직적인 발전을 유도했다면 이제는 자동차, 조선, 의료 등 다른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수평적인 IT융합시대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도 IT를 중심으로 산업간 융합 전략을 추진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1. IT융합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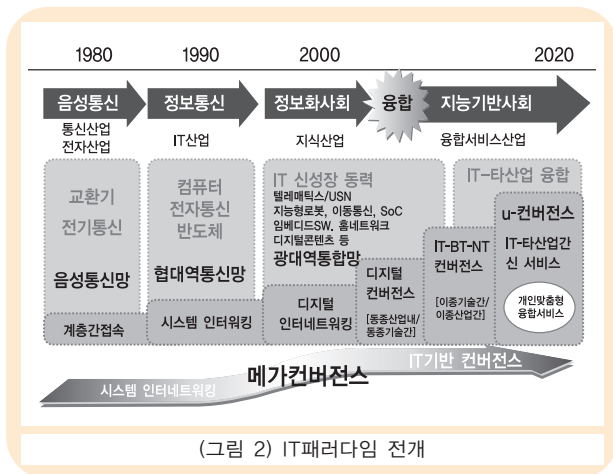
융합의 사전적 정의는 분리되어 있던 두 개 이상의 요소들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하나의 요소로 수렴되는 현상 또는 이러한 양상을 따르는 모든 사회·경제적 현상을 의미한다. 결합이 진전되는 정도에 따라 'Package'



(A+B=A+B), 'Hybrid' (A+B=AB), 'Fusion' (A+B=C)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들을 모두 포괄하여 융합(Convergence)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런 융합의 의미는 기술과 시대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주로 기능중심의 결합으로 복합복사기, 냉난방기 등 기존에 통용되던 기능과 기능이 단순히 접목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이후에는 주로 기술 중심의 결합으로 IT, BT, NT, GT 등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융합은 주로 기술적 측면에서의 결합이라는 의미로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융합의 범위가 제품, 산업, 학문,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융합의 범위를 기술 중심이 아닌 다양한 융합 현상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개념으로 범주화해야 한다. IT, BT, NT 등 융합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술들을 포괄하면서 산업분야의 광범위한 융합 트렌드를 반영하도록 융합의 범위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2010년 7월에 발표한 'IT융합 확산전략'에서는 IT융합을 IT의 Sensing, Networking, Computing, Actuating 기술이 부품 또는 모듈로서 내재화되어, 타산업의 제품, 서비스 및 공정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IT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단계에서 IT융합은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 시장 창출을 의미하고 있다.



(그림 2) IT패러다임 전개

• 자료 : IT융합기술과 융합산업(ETRI, 20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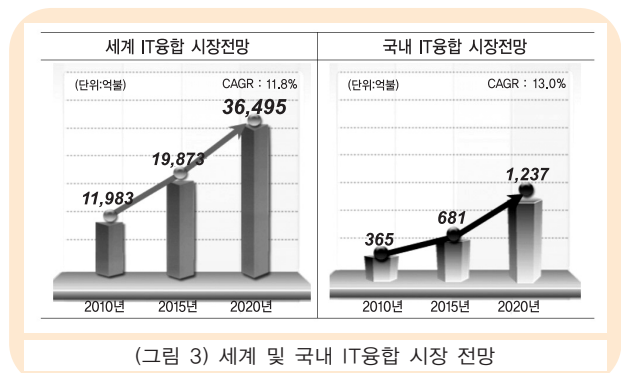
2. IT융합시장 규모 및 전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IT융합

시장 규모는 2010년 1.2조 달러에서 2020년에 3.6조 달러로 연평균 11.8%의 고성장이 전망된다. 이는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이 3~4%임을 고려할 때 3배나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국내 IT융합 시장도 2010년 365억 달러에서 2015년 681억 달러, 2020년에는 1,237억 달러로 세계시장 성장률보다 높은 13%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세계 IT융합시장은 산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미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 세계 및 국내 IT융합 시장 전망

• 자료 : 자동차, 조선, 의료 등 10대 IT융합분야 추정(ETRI, 2010.6)

급속하게 성장하는 IT융합 시장을 선점하고,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의 IT융합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국의 IT융합 정책동향

전 세계적으로 융합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산업 전 분야에 메가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자국이 보유한 강점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융합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융합 트렌드에 대비하여 이미 국가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과 법·제도의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Innovate America'를 통해 IT활용 촉진을 국가혁신전략으로 발표하고 IT를 활용하여 제조부문과 서비스부문간의 연계를 추구하였다. 2008년에 오바마 정부는 IT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친환경 녹색산업을 미국의 신산

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뉴딜정책’을 발표하여 교육, 과학 기술, 환경·에너지, 의료 등 4대 분야에 IT를 접목하고 초고속 정보통신망 등 IT기반 인프라를 확충하는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IT와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미래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유럽은 2006년에 ‘Shaping Europe’s Future through ICT’에서 IT를 통한 경제사회 기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경제전반에 있어 IT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2006년에 입안된 제7차 FP (Framework Program)를 통해 융합기술개발 확대 계획 및 집행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IT, BT, 교통, 에너지 등의 융합부문을 중심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727.6억 유로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2008년에 미래 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조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료, 섬유, 건설, 바이오 등 6대 선도시장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산업부문 간 융합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교육연구부(BMBF)와 경제기술부(BMWi)는 2011년까지 ICT2020 연구프로그램에 약 150억 유로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ICT분야에서 독일의 기술을 확장하고 선두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ICT활용을 통해 혁신이 가능한 자동차, 기계, 의료, 국방 등 7개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2009년에 발표한 ‘i-Japan2015’에서는 인간중심의 디지털사회 구현을 위해 전자정부, 의료건강, 교육 등에 IT를 활용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2010년에 발표한 ‘산업구조비전 2010’ (The Industrial Structure Vision 2010)에서는 기존의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해외 시장과 연결하여 강화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IT활용을 통해 산업 구조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오랜 기간 산업융합 추세를 준비한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융합화에 대한 대비는 조금은 늦었지만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산업기반을 활용하여 IT융합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급성장하는 IT융합시장의 선점과 신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III. 국내 IT융합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국내 IT산업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주력산업으로 고용 창출, 무역수지 개선 등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선도적인 투자와 우수한 제조·생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모리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휴대폰 세계 2위로 글로벌 IT강국의 위상을 높여 왔다. IT강국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IT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깊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

첫째, IT산업과 주력산업간 협력기반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수요기업과 IT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동차, 조선 등 글로벌 수요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핵심 분야의 IT융합이 미흡하다. 실제 자동차 IT분야의 경우 전장화를 통한 IT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EU, 일본 등 선진기업들은 도요타·도시바, BMW·인피니언(Infineon) 등 자국 기업 간 협조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와 IT업체 간 협력은 초기 단계이다. 조선IT분야 역시 국내 조선 IT기자재 업체의 기술력 및 인지도의 부족으로 IT기반의 융합 부품과 모듈은 글로벌 조선기자재 업체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IT, 의료IT 역시 성장잠재력이 크지만, 산업간 인식 부족과 제도 미비 등으로 국내 IT융합시장 형성이 지연되는 상태이다.

둘째, IT융합 핵심부품과 임베디드SW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태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서 발표한 IT융합기술 수준에 따르면 IT융합 기술수준이 IT융합 최고국인 미국과 평균 2.7년(78.7%)의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센싱은 3.1년(78.7%), 네트워킹은 1.9년(83.5%), 컴퓨팅은 2.7년(77%), Actuating은 3.2년(75.1%)으로 조사되었다. 제품을 지능화·시스템화하는 핵심 기술로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이 급증하는 임베디드SW 역시 기술력 부족으로 외산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08년 기준으로 임베디드SW의 국산화율이 휴대전화 15%, 자동차 5%, 로봇 5%, 조선 4%, 국방 1% 수준이라고 밝혔다.

셋째, IT융합을 선도하는 창의적 엔지니어링 역량이 미흡하다. 산업연구원(KIET)이 2007년 융합시장 및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 설계능력을 나라별로 비교한 결과 한국(2.49)

은 IT융합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3.90), 일본(3.55)에 비해 크게 뒤쳐졌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융합대학원을 설치하는 등 융합인재 양성에 노력 중이지만 그동안 대학의 IT교육이 주입식 이론 중심과 칸막이식 학과 교육에 머물면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IT융합 인재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지만 산업별로 IT융합 인력 수급 등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IT기기 위주의 나홀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IT융합을 통해 타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선도적 인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IV. IT융합산업의 육성전략

정부는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주력산업의 IT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부가가치 제고의 수단으로 IT융합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IT KOREA 미래 전략'('09년 9월)의 5대 추진 전략 중에 핵심전략으로 '10대 IT융합전략 산업 육성'을 꼽았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0년 7월 'IT융합 확산전략'을 발표하여 창의적 IT융합 역량강화, IT융합 부품산업 육성, IT융합 시장 창출, IT융합 인프라 조성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IT융합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SW와 시스템 반도체 등 IT부품과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취약점인 SW와 IT부품을 강화시키는 시장이 바로 IT융합 시장이다. 정부는 IT융합 시장을 선점하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분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IT융합은 IT산업 뿐 아니라 타산업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IT와 에너지의 융합으로 에너지 절감, 탄소배출 저감 등 에너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여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IT융합에 대한 성장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관련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범정부 차원의 IT융합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비전인 "2015년 세계 5대 IT융합 선도국가 도약"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011년에는 IT융합 인식 확산 및 제도 개선, 다양

한 IT기술과 산업협력 모델 발굴, 신 시장 창출을 통한 IT융합 확산, 창의적 IT융합인재 양성을 주요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IT융합 인식 확산 및 제도 개선

IT융합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IT융합 제품의 원활한 시장 출시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IT융합 표준·신뢰성 검증 체계·통계 등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IT융합 성장기반이 확립될 수 있도록 IT융합 정책홍보, 산업 IT융합 실태조사 등 IT와 타산업간의 원활한 융합 환경기반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첫째, IT융합에 대한 인식제고이다. 산업 전반에 IT 융합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IT융합을 통해 해당 기업의 제품·서비스 혁신에 성공한 기업인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IT융합기업인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정부 프로젝트 참여 가점 등 다양한 혜택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IT융합 우수 성공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그리고 IT융합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IT융합 컨퍼런스를 통해 IT융합의 국내외 동향, 정책, 성공사례를 알아보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산업 IT융합 실태조사와 통계기반 구축이다. IT융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산업-IT융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IT융합 전문기업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IT융합 기업, 대학, 연구소·기관 등 종합적인 IT융합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0년에 조사한 자동차, 건설, 섬유 등 9대 전략산업별 IT융합지수를 토대로 산업별 IT융합 분류체계 등 산업 인프라도 체계화 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IT융합 제품의 원활한 시장 출시를 위해 IT융합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제도의 선제적 발굴과 법·제도 개선도 지원해 나갈 것이다.

2. 다양한 IT기술과 산업협력 모델 발굴

IT융합이 모든 산업분야에 확산되면서 제품의 혁신을 통한 차별화와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의 IT융합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IT산업과 非IT산업 간에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는 많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IT융합분야에 협력의 장을 만들어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그린IT, RFID 등 IT융합기술이 검증·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첫째, IT와 주력산업 간의 상호 이해와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을 확산하는 것이다. 주력산업과 IT기업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간 벽을 낮추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는 IT융합 포럼의 운영이 강화된다. 그래서 2011년에는 각 포럼별 산업적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비즈니스 기회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산업별 IT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시범사업 등을 담당할 산업IT 융합 지원센터 2개를 추가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둘째, 녹색 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 IT기술의 접목을 활성화해야 한다. IT를 통한 산업의 녹색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조, 물류 등 산업분야에 그린 IT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검증할 계획이다.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등 건물과 공장 등에 시범·적용하고 성공사례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과 연계한 그린IT 사업모델 적용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도입효과가 높은 산업부문에 RFID의 보급을 확산할 것이다. 수요창출 효과가 크고 기업 프로세스 혁신이 가능한 업종별 모델의 개발을 지원하여 점차적으로 자생적 투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강, 전자, 화장품, 도서, 식품 등 RFID 수요창출이 가능한 유망분야로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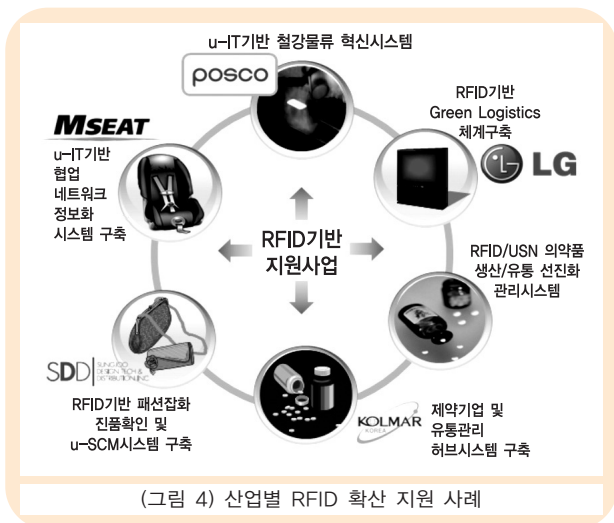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거래 투명화 등을 위해서도 민간중심의 RFID보급·확산을 강화해야 한다. 제약 산업의 경우 국내 유통 의약품의 20%까지 RFID부착을 확대 지원하고도 매장, 병원, 약국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반인들도 다양한 실생활 공간 속에서 RFID와 기기·서비스가 결합되어 새롭게 활용될 수 있는 모바일 RFID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3. 신 시장 창출을 통한 IT융합 확산

향후에도 IT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IT자체의 기술혁신에서 벗어나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발전이 절실하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주력산업의 IT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부가가치 제고의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IT융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주력산업과 IT융합의 결과물이 매출로 연계 될 수 있는 IT혁신센터, 임베디드SW산업 육성 및 지식서비스 시장 창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IT융합 기술의 상용화를 전제로 한 수요기업과 IT기업 간의 동반성장 모델인 'IT혁신센터'의 확산이다. 완성차기업과 IT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한 '차량IT혁신센터'를 통해 해외진출 및 특허출원을 지원하고, 현대자동차와 함께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12건의 특허출원과 해외투자유치 MOU체결을 통해 60억 원의 투자유치를 성공한 바 있다. IT혁신센터는 차량뿐만 아니라 조선 등 타분야로 확산시켜 IT산업과 비IT산업간 동반성장의 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둘째, 임베디드SW와 주력산업간 융합 시장 창출이다. 실질적으로 IT융합은 대부분 임베디드SW의 형태로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Smart TV 등 시장 성장성과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전략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임베디드SW 핵심 기술을 적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결과물의 상용화율을 높이기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토록 하고 상용화를 전제로 구매조건부 시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임베디드



(그림 4) 산업별 RFID 확산 지원 사례

SW 분야의 기반 조성에 핵심인 우수 SW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임베디드SW 공모전'과 컨퍼런스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모바일시대를 대비하여 스마트 모바일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영세 중소 모바일SW기업들이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 구축된 모바일테스트 환경을 활발히 이용하게 할 것이다.

셋째, IT활용을 통한 지식서비스기업의 혁신기반 조성이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환경을 극복하고 고용 및 신 시장 창출을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서비스 업종별 IT융합 전략 모델의 발굴을 지원하여 서비스산업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2010년에는 피부관리실 및 네일샵, 축산물 소매상, 자동차정비 사업자 등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해 고객관리 및 매장경영의 효율화를 지원한 바 있다. 실제 국내 중소서비스 기업들은 IT도입이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초기투자 부담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IT활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소서비스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중심의 업종별 IT솔루션을 보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등 혁신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런 솔루션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현장방문과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4. 창의적 IT융합인재 양성

그간의 선진국 모방(Catch-up)에서 벗어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IT융합 인재양성이 가장 절실하다. 이를 위해 IT융합 고급인재 양성 및 한국형 MIT 미디어랩 신설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한국형 MIT 미디어랩의 신설이다. 파격적인 교과과정, 창의적 연구 환경을 갖춘 한국형 MIT 미디어랩을 대학에 신설하여 IT융합 분야의 글로벌 리더급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기존의 이론위주 공학교육을 완전히 탈피해 연구 활동 중심의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공학뿐만 아니라 인문·경영 등 다학제적 교수법을 채택하는 등 창의적 연구 환경을 갖춘 대학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2개(10년 1개, 11년 1개)의 미디어랩을 조성하여 바이오칩, u-헬스,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등의 융합분야를 연구할 계획이다. 2010년에는 미래융합기술연구소(연세대학교)가 IT명품인재 양성사업자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 2011년에도 상반기에 신규 사

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대학별로 연 50억 원씩 최장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IT융합 고급인재의 양성이다. 산업계의 최대 애로사항인 IT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인력공급이 시급하다고 제기된 의료, 기계, 건설, 조명분야에 향후 5년간 780명의 석·박사급 IT융합 인재를 우선 양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산업분야에서 2천명의 IT융합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2010년에는 대학 IT연구센터(ITRC)를 통해 IT+자동차, IT+의료 등 14개 대학원을 지원하여 280여명이 배출되었고, 2011년에도 IT융합인력 실태조사와 과제 수요조사 등을 근거로 IT융합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IT융합 고급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IT융합과 관련된 주요국의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IT융합 강국도약으로 발돋움을 위해 2011년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할 주요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부의 국정목표인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의 지속적인 우위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열쇠가 바로 IT융합이다. 또한 국내 IT산업의 하드웨어와 SW, 부품소재, 장비 부문간 불균형 문제도 IT융합을 통한 IT시장을 만들어 간다면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산업구조를 조기에 선진국형 체질로 개선하기 위해서 IT산업과 주력산업간 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확산을 본격화해야 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산업계 전반으로 IT융합이 확산될 수 있도록 IT기업이 타산업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신 시장 창출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과 기존의 IT융합기술을 시장에 적용하고 검증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장창출로 연계되도록 할 것이다. 끝으로, 시장선도자의 역할을 담당할 창의적 IT융합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으며 진정한 IT융합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미래기획위원회, “IT KOREA 미래전략”, 2009
- [2] 산업연구원, “일본 산업구조 비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0
- [3] 전자부품, “IT기반 융합기술의 해외 연구 동향 분석”, KOSEN Report, 2009
- [4] 지식경제부 “IT융합 확산전략”, 2010
- [5] 지식경제부, ‘계약+IT융합발전전략’, 2010
- [6]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 2010
-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기반 융합사례 분석 및 시사점”, IT Insight, 2009
- [8] 한국정보화진흥원, “IT기반 산업간 융합 현황과 국가정보화 전략방향”, 2010
- [9] 정명애, 한만철, “IT융합의 새로운 도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
- [10] 하원규, 최문기, “Super IT Korea 2020”, 전자신문사, 2009
- [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시장·고객 중심의 IT융합기술 미래 플래닝”, 2010
- [12] Deloitte consulting, “미래 신성장동력의 위한 정책조사 보고”, 2009

약 력	
	<p>1979년 행정고시 23회 1980년 2월 한양대학교 법학사 1995년 정보통신부 정보정책과 과장 1999년 ~ 2002년 정보통신부 기획예산 담당관 2002년 ~ 2004년 정보통신부 정보기반 심의관 2007년 ~ 2009년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2009년 ~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p>
<p>정 경 원</p>	

